

[성주간] 주님수난 성지주일 화 답 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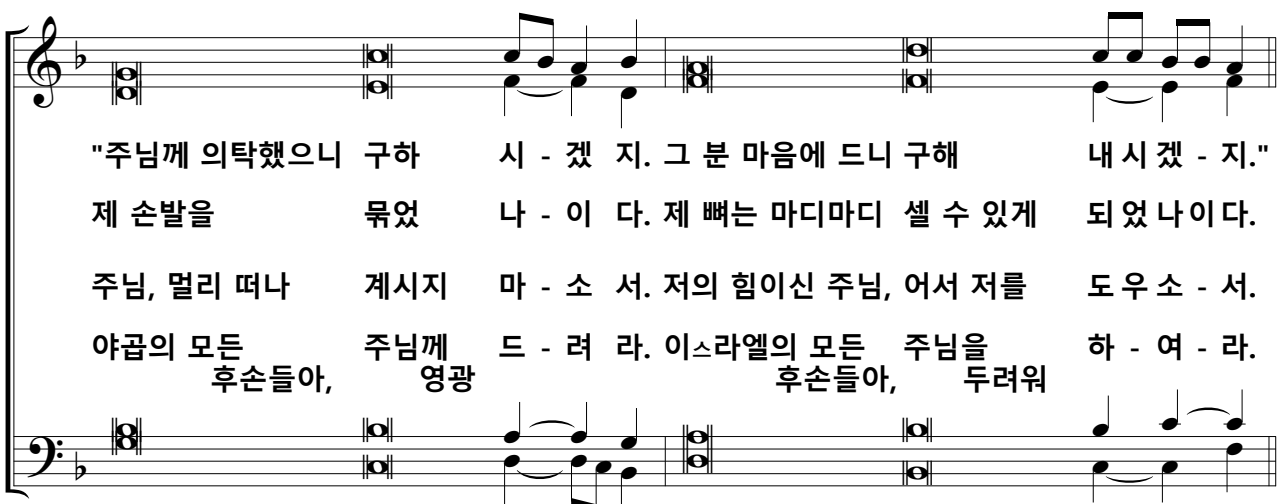
시편 22(21), 8-9. 17-18. 19-20. 23-24



(후렴) 하 느 님, 저 의 하 느 님, 어 찌 하 여 저 를 버 리 셧 나 이 까?



1.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 웃 어 대 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 이 다.
2. 개들이 저를 에 워 싸 - 고 악당의 무리가 둘 러 싸
3.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 - 지 - 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 이 다.
4.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 주님을 경외 주님을 찬양하 여 라.
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 하는 사람들아,
데에서 당신을 찬양 하 오 리 - 다.



"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 시 - 겠 지. 그 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 시 겠 - 지."
제 손발을 묶었 나 - 이 다.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.
주님, 멀리 떠나 계시지 마 - 소 서. 저의 힘이신 주님, 어서 저를 도우 소 - 서.
야곱의 모든 주님께 드 - 려 라. 이스라엘의 모든 주님을 하 - 여 - 라.
후손들아, 영광 후손들아, 두려워